



뇌과학과 기독교 신앙
한국의교회탐구센터 엮음 /
IVP

며칠 전에 영화 「기억 전달자」를 보았다. 영화가 흑백으로 시작해 화면에 문제가
있나 생각했는데, 그것은 획일화된 사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그곳의
구성원들은 인류가 경험한 전쟁, 자연재해, 가난, 가족, 사랑과 같은 기억이 없
다. 왜 사회는 사람들의 기억을 통제했을까. 고통스러운 기억이 없는 세상이 행
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을까. 그 사회는 기억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통제한
다. 누군가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사용하면 그는 정확한 표현을 쓰라는 강요를
받고, 거주지를 나설 때는 모두가 감정 억제 약물을 맞아야 한다. 약물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SF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현대에서는 우울증 치
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예사일이 되었다.

도덕성 알약 프로젝트?

‘도덕성 알약 프로젝트(morality pills project)’라고? 마치 어떤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만 같은 이 말은
액면 그대로 일부 신경과학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약물로 도덕성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이다. 주의력결핍 과잉행
동장애(ADHD) 치료제인 리탈린은 인지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어떤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 약물
을 복용하고 있다.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약물로 도덕성과 인지 기능을 통제해도 되는가? 최근의 신경과
학은 의지에 앞선 뇌의 작용이 인간의 행위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기도
한다. 믿음도 뇌의 지배를 받는다는 뇌과학의 주장에 기독교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가? 『뇌과학과 기독교 신
앙』은 이런 질문에 직접적인 답은 하지 않지만 과학과 신앙에 관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게 해 준다.

어떻게 과학과 신앙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

책의 <특별좌담>에서 첫 질문은 ‘어떻게 과학과 신앙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였고 좌담에 참여한
패널 세 분은 각자의 이야기를 했다. 만약 내가 이 질문을 받는다면 『뇌과학과 기독교 신앙』 책을 통해서라고 말
하겠다. 무크지인 이 책은 연관 공부의 동기를 한껏 부여해 준다. 과학과 신앙을 주제로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
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은 이 책을 읽어라! 이 분야에 문외한이었던 나는 <특별좌담>을 보고 패널들의
기사와 주장이 담긴 글을 찾아보았고, <특집>의 논문 세 편을 토대로 신경과학과 현재 내가 하는 윤리학 공부
를 연결해 신경 윤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북리뷰>를 읽고는 신경과학에 관한 꼬리에 꼬리를 문 책 읽
기를 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자신의 관심 분야가 무엇이든 간에 분명 책의 어느 한 지점과 만나 ‘과학
과 신앙’ 공부의 물꼬를 틀 것이다.

책 속의 한 줄

뇌과학은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물질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관심을 돌리기를 촉구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물질
속에서 정신을 찾을 수 있으며 어떻게 물질적 존재이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과학이나 철학의 문제에
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적인 출발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뇌과학과 신앙의 지평을 양방향으로 확장
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서는 새로운 소명으로 다가옴을 느낀다. _p.186